

## 중국의 부상, 어떻게 보아야 하나?\*

Bernard Gordon

중국이 동아시아 및 세계정치에 미칠 영향과, 중국의 전망을 향후 5년간에 대해서라도(향후 10~20년은 말할 것도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대한 과거 역사에서 보면 “이전에도 그래왔다”는 말은 온당하며 최소한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올바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보겠다. 본인이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 재학시절에 한스 모겐타우(Hans J. Morgenthau) 교수를 알게 되었고, 그와 함께 연구를 했다는 것은 본인에게 큰 행운이었다.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진 이유는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을 자극하는 힘에 관한 것들 중에서 그의 저서들이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기 때문이다. 그를 만나기 전인 1952년에 본인은 그의 저서 ‘국익보호(In Defense of the National Interest)’를 접하게 되었다. 그 책은 냉전 초기의 아시아와 서구를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당시 한국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 때는 1949년에 마오쩌둥(Mao Tse Tung)이 승리한지 막 3년이 되던 해였으며, 중-소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대다수 사람들과는 달리 모겐타우 교수는 중국의 민족주의 때문에 중-소 간의 결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중국혁명이 중국인들의 불만에 대한 진정한 결과였음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극동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게끔 되어 있는 구소련의 제국주의 정책에 중국이 동조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랬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미개발 자원이 풍부하며 민족적 자존심과 사명에 대한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나고 있는 나라이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실패는 우리 외교사상 가장 큰 패배 중 하나이다...<sup>1</sup>

---

\* 이 글은 2005년 10월 28일 개최된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회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sup>1</sup> Hans J. Morgenthau, In Defense of the National Interest (New York, Knopf, 1952), p.205.

이미 50년 전에 그는 중국이 “민족적 자존심과 사명감의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그의 주요 저서인 ‘국가간 정책(Politics Among Nations)’도 주로 세계정세에서 지속되고 있는 민족주의의 역할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그 후 본인은 동남아시아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옳았는지를 계속 느껴왔다. 따라서 본인은 중국에 관한 언급을 하기 전에, 우선 세계 관계에 대한 민족주의의 역할에 관해 잠깐 언급하고 난 후 이와 연계하여 ‘중국의 부상’에 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 I

과거세대에서는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소멸했다는 주장이 정치인 및 학자들 사이에서 유행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1950년대에 시작되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 결과, 지금 일부 모임에서는 민족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 말하자면 ‘국제법규’를 갖춘 ‘국제공동체’ 같은 것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본인은 이와 같은 시각에 대해 큰 설득력을 가진 증거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절대 믿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태국이나 베트남, 한국, 인도네시아를 다녀와서 민족주의가 쇠퇴 중이라고 말해달라고 하고 싶다. 이는 20~30년 전과 변한 게 전혀 없으며, 본인이 매번 약 1년씩 3번을 살아본 일본도 마찬가지임은 말할 나위 없다. 오늘날 민족주의의 힘이 약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인도와 중국을 다녀와서 민족주의가 쇠퇴 중인지 다시 말해달라 하고 싶다. 지난 봄 본인이 인도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학교를 방문했을 때, 말 그대로 “우리는 조국 인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로 감격스러운 환대를 받았다.

그 이전에는 중국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같은 정서의 말을 들은 적이 두 번 있다. 그러한 정서가 대만과 관계된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체로는 보다 폭 넓게 적용된다. 중국 사람들 사이의 이러한 의식은 2세기 이상 침체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조만간 다시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제법 떨어진 터키에서도 최근에 본인은 이와 비슷한 민족주의적 시각의 목소리를 들었다. 터키 젊은이들은 투르크제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정체성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조국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민족주의는 가까워서 보편화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전혀 놀라

운 일이 아니다. 민족주의가 분명하게 쇠퇴하거나 소멸한 국가는 서유럽 국가 몇몇에 불과하다(이들 국가의 수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일 것이다). 그 국가들은 지난 2세기 동안 직접적으로 여러 번의 전쟁을 경험하였으며, 국민들은 현재 벨기에인, 프랑스인, 스웨덴인, 노르웨이인보다는 단순히 유럽인으로 간주되고 싶어하기도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는 제2차 세계 대전의 피와 죽음, 그리고 포화에 대한 기억이 아주 강할 때 쇠퇴해졌다.

일부 개발도상국 같은 지역에서도 냉전종식 초기에 이와 같은 ‘민족주의 종말’에 대한 변화가 있었지만 곧 사라졌다. ‘범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 ‘범아랍주의(Pan-Arabism)’, ‘아랍민족주의(Arab Nationalism)’와 같은 구호를 기억하는가? 이러한 사상들은 중동 국가의 분열된 국가정체성을 초월하여 ‘아랍국가’라는 망토 속으로 모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회교국가’라는 담요로 분열된 이슬람 국가들을 감싸고자 하는 꿈이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이와 같은 ‘국가 간’의 움직임은 전혀 생명력이 없다.

이러한 ‘국가 간’의 움직임은 특정한 민족이나 시기, 장소에 뿌리는 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중동지역에서 나타나는 국가주의는 강력한 힘이 부족하며,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이란 등 언급하기에도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난다. 민족주의는 이라크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비록 추구하는 바가 이라크라는 단일국가인지, 아니면 쿠르드족이나 수니파, 시아파라는 소규모 정체성으로 분리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말이다.

이 모든 것들은 세계 전역에서 강력한 지역주의가 규범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이는 지금 ‘세계화’에 쏟고 있는 정성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민족주의가 마찬가지로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 II

물론 중국도 이러한 규칙에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의 경우가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하지만 오히려 중국은 기본적인 사례이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 모두가 자신의 조국이 다른 나라보다 국력이 약해서 ‘특별영토권’주의로 인한 고통을 200년 넘게 겪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 영토 내의 더 강한 외국세력들(프랑스, 영국, 러시아, 독일)이 중국 영토를 자신의 조차

지로 분할하여 차지했던 것이다. 이 조차지 내에서는 중국의 법률보다 프랑스, 영국, 러시아, 독일의 법률이 행동규칙으로 자리 잡았다. 첨언하자면, 미국은 이러한 특별영토권 원칙을 실천하지 않은 나라였다. 대신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개방주의’ 원칙을 채택했다. 다시 말해, 모든 나라가 평등을 바탕으로 중국과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은 중국 영토의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 영토가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중국의 영토분할은 19세기 말에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중국 남부에서 떼어내어, 톤킨(Tonkin), 안남(Annam), 코친차이나(Cochinchina), 캄보디아(Cambodia), 라오스(Laos)를 각각 자치령과 식민지로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영토분할은 일본이 중국의 동북 3성이 있는 만주지역을 침공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일본은 이 지역을 만주국으로 다시 이름 지었지만, 그 당시 일본이 취한 조치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자신이 차지한 영토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붙였고, 그 영토 거주민들은 일본어로 읽고 말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개명 하도록 강요 받았다.

이제부터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말이 왜 그토록 주목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그 이유는 주로 20세기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가 국가의 ‘부상’에 관해 최소한 한 가지의 중요한 예시를 제공한다. 독일의 발전은 커다란 정치적 안정을 이끌어 내어 결국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따라서 이는 그 당시의 국제 ‘시스템(system)’이 독일로 대표되는 새로운 요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국제시스템이 부상하는 중국을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과거 독일의 경우에 비해 더 훌륭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추가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과거에 부상했던 한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독일은 군사력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 문화, 지적 활동에 있어서 세계 중심지(경우에 따라서 세계 선두주자)로 새로운 두각을 나타냈다. 과학에서는 아이슈타인(Einstein)과 프로이트(Freud), 음악에서는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와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 철학과 사회과학에서는 프레드리히 니체(Fredrich Nietzsche)와 막스 베버(Marx Weber)를 생각해 보라. 그러나 인간의 과학적, 지적, 예술적 역량의 두뇌에 비해 정치

적 두뇌는 뒤지는 것이다. 그 결과물이 제1차 세계대전을 불러 일으킨 일련의 정치적 오판이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패배로 끝났으며 독일의 패전은 독일을 ‘보복주의(revanchism)’로 몰고 갔다. 즉 독일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자국의 정당한 지위가 박탈당했으며 이러한 오류는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고 믿게 된 것이다.

히틀러(Hitler)는 이러한 보복주의에 대한 신념에 편승하여 이를 이용했다. 열광하는 독일 대중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히틀러의 필름을 보면, 독일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신념으로 인해 그가 독일의 민족주의에 호소하는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독일은 베르사이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에 의해 자신에게 강요된 국제 ‘규정’들을 결국 뒤엎어버렸다.

### III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의 국제시스템은 중국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력의 부상에 대한 문제를 보다 훌륭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오늘날의 분석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최소한 네 가지 이유에서 잘못된 것이다. 첫째, 특히 1933년 이후의 독일은 그 당시의 세계 정치시스템을 타도하고, 독일을 유럽 내외에서 유력한 세력으로 만든다는 두 가지 목표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타도를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부상하는 독일을 통제한다는 것이 당시에 구축되었던 국제시스템으로서는 불가능하였으며, 결국 분쟁과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오늘날의 문제는 독일의 경우처럼 분쟁과 전쟁이 불가피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이유에서 ‘불가피하지 않다’는 대답이 나온다. 첫째, 로버트 쯔릭(Robert Zoellick)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불과 4주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중국은 자신의 미래가 국제시스템의 기본질서를 뒤바꾸는데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sup>2</sup>는 것이다. 둘째, 오늘날의 아·태지역은 1933년에 독일이 보았던 유럽지역과 완전히 다르다. 구소련 시절에 ‘세력의 별자리’라는 말이 있었다.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 내 ‘세력의 별자리’는 프랑스와 영국 양국 모두가 군사력과 정치적 지도력이 약했으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

<sup>2</sup>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obert B. Zoellick, Deputy Secretary of State, Remarks to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September 21, 2005, New York

는 독일의 군사력 증강에 저항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없었다.

오늘날 아시아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현재 아시아에는 군사력이 약하지도 의지가 부족하지도 않은 미국이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여타 주요국들도 있다. 이들은 각각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를 토대로 높은 수준의 군사적 잠재력과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 이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군사적 역량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별다른 저항이 없는 무인지경만 보았던 히틀러와, 현저하게 다른 광경을 접하고 있는 오늘날의 중국과는 상황이 같지 않다는 의미이다. 히틀러가 봤던 곳에는 겁에 질린 토끼들만 있었으나 현재의 아시아에는 야생 멧돼지들이 살고 있다. 그 중에 크고 작은 멧돼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모두는 결국 야생 멧돼지들이다.

본인과 같은 정치학자들은 이를 ‘다극화’라 하는데, 한 지역 내에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현실적 및 잠재적으로 큰 군사력을 가진 중심세력이 여럿 있는 경우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오늘날 아시아의 환경은 1930년대에 독일이 대했던 무인지경의 취약한 시스템과 크게 다르다.

두 번째 차이점은 지난 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자원과 시장의 문제이다. 과거의 국가들은 ‘자급자족경제’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즉, 스스로 충분한 자원이 있거나 외국 자원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과 독일은 경제적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더 이상 영토를 차지하고 통제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는 외국 자원과 시장을 정복하거나 직접 통제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국은 과거 독일의 지도자들이 꿈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교훈을 분명히 얻고 있다.

그 결과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엄청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였으며, 또한 FDI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 세간에 알려진 중국 대외직접투자의 최근 사례는 2달 전에 있었던 미국 석유회사를 매입하려 했던 것이며, 이보다 앞서 중국 기업 레노보(Lenove)사는 IBM의 자회사를 인수한 바 있다. 세계화와 관련하여 지난 달에 필릭 부장관이 요약적으로 말한 것이 있는데, 그에 의하면 덩 샤오핑(Deng Xiaopin) 집권시절에 중국 지도자들은 “세계화를 멀리하기보다는 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독일의 사례와 다른 세 번째 차이점은, 독일은 인종적 요소를 자국이 부상하는 필수적 중심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독일은 노골적으로 폴란드인, 러시아인 및 기타 동유럽인들을 독일의 의지에 운명이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열등민족(여기에는 물론 유대인도 포함된다)으로 보았다.

중국의 민족주의에도 인종적 요소가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 영토 내의 거주민들을 향한 것으로, 그들은 중국의 한족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한족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지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물론 중국은 티베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 남부 및 남서부의 소수민족 문제, 그리고 서부의 위구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중국이 아·태지역 내 비(非)중국인들을 지배하거나 공격하려 한다는 증거는 실제로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인이나 일본인, 말레이-인도네시아인, 인도인, 카프카스인들과 중국과의 관계도 독일이 슬라브 및 러시아 민족과 가졌던 관계와 다르다.

독일과 유사하게 보는 분석이 적절치 못한 네 번째 이유는 오늘날 중국 지도자들이 당면한 중국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1930년대의 독일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비록 1920년대와 1930년대 초에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중산층을 거의 사라지게 만들긴 하였지만, 독일은 선진 산업사회였다. 그러나 히틀러와 나치(Nazi)당이 권력을 잡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문제들이었고, 그 결과 그는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되었다.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의 리더십과 나치당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크게 단합된 지지를 보냈다.

이에 비해 중국은 결정적으로 2중 경제이며, 심지어 3중 경제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중국은 서구와 비슷한 소득 및 소비 행태를 가진 고소득층이 아주 낮고 적다. 해안 도시들과 난창(Nanchang)이나 쿤밍(Kunming)과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신흥 중산층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약 9억 명의 중국 농촌인구가 빈곤층이며 그 중 2~3억 명은 극빈층이다. 그들은 대개 하루 1달러로 생계를 꾸려가며, 기본적으로 19세기 이전의 환경 속에서 몹시 고된 생활을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이 오늘날 중국 지도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중국의 잠재적 ‘사회불안정’이다. 본인과 같은 정치학자들은 이를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라고 부른다. 이는 중국 지도부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 중 하나가 중국 역사에 뿌리를 둔 것으로, 불만을 가진 지역들과 정권의 정당성을 강하게 위협하는 사람들로 인해 항상 우려되는 위협이다.

다른 하나는 보다 심각한 것으로 중국의 소득분배가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도농(都農) 간의 격차로써, 지방정부 공무원의 부패 및 무사안일과 관계되는 경우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9~9.5%의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해외수출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중국의 수출품들(또는 수출상품가격)로 인해, 미국에서부터 EU,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중국의 무역상대국들은 점점 초조해 하고 있다. 그 결과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 양자관계는 팽팽해진 상태이다. 스노우(Snow)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방문 직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특히 그러하다.

중국이 반드시 위안화를 재평가하도록 하여 큰 폭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축소하라는 압력을 스노우 장관은 미국 의회로부터 받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중국 지도부는 국내문제와 대외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 전환이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마음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의 압력은 중국에 대한 ‘위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불가피하며, 대외관계에 관한 중국의 오랜 역사에서 볼 때 정말 피해야 할 부분은 위협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민족주의와 자존심이 위협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국내문제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통, 교육, 사회서비스 등의 농촌지역 인프라(infrastructure)를 완전히 개선하는 일이다. 이는 지금의 대다수 중국 농촌 빈민과 도시지역 주민들 간의 생활격차로 인한 잠재적이고 강력한 정치적 분열을 축소하는데 본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사회불안정’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 많은 부를 새롭게 창출하여 농촌소득과 농촌지역 구매력을 개선시켜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 현재 중국 공산당의 인식이다.

#### IV

지금까지의 강연내용이 모든 것을 다루지 못했고 중요한 경제이슈가 일부 누락되어 있음을 본인도 알고 있다. 예를 들면 2~3년 전에 동아시아에서 폭 넓게 제기되었던, 중국이 대부분의 FDI를 유치함으로써 인해 투자가 필요한 아시아 여타 지역에서 나타난 투자기근에 대한 우려 등에 관해서는 본인이 언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중국의 FDI 유치속도는 느리게 시작되고 있고 작년의 경우 영국이 유치한 FDI가 중국보다 더 많았다. 한국도 2003년도 FDI 유치실적이 과거보다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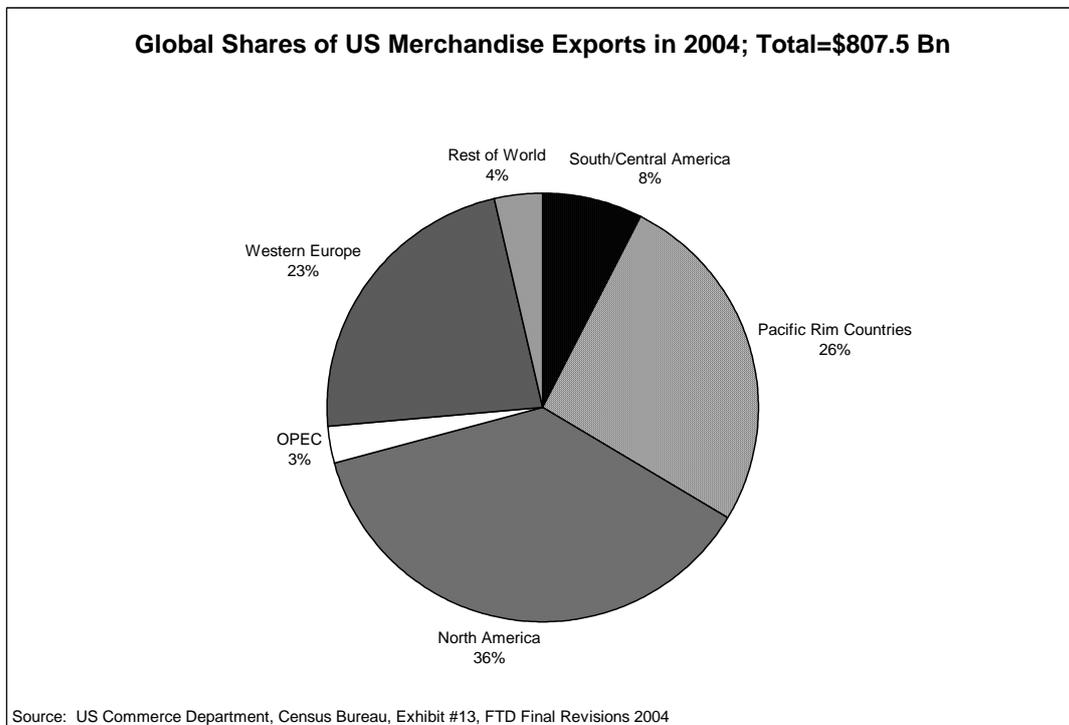
또한 미국이 안고 있는 심각한 우려에 대해서도 본인은 언급하지 않았다. 즉, 중국의 주도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배제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우려이다. 최근 미국 국무부 부장관직에서 물러난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가 지난 5월에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제안들을 “미국이 아시아에서 전혀 환영 받지 못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알파한 속임수”라고 묘사하면서, “중국은 미국이 배제되는 여러 논의에 아주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sup>3</sup> 그의 후임인 로버트 쥘릭 부장관도 지난 달 뉴욕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만일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책략을 모색할 경우 우려가 커질 것이다. 이보다는 아세안지역포럼(ASEN Regional Forum) 및 아·태경제협력포럼(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을 통해 아세안, 일본, 호주 등의 국가들과 공동으로 지역 안보와 번영을 이루어야 한다.

몇 주후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일(미국을 배제하고 태평양에 선을 긋는)을 중국이 정말 계속 도모한다면 이는 아주 부정적인 징조이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럴 것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아·태지역은 미국 전체 수출의 1/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전체 수출에서 서부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26%인 아시아보다 여전히 작다. 아래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수출은 세계 3대 경제지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세계적 수출형태는 미국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것이다. 이는 마찬가지로 독특한 미국의 3극 투자전략에 대한 중요한 토대이기도 하며, 미주대륙의 모든 국가들이 정치적 및 전략적으로 아·태지역

<sup>3</sup> Quoted in Asahi Shimbun, 2 May 2005.

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배경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본인이 ‘중국의 부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 특히 미국의 지도부가 양국 이해관계에 대해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좋은 예가 지난 주에 럼스펠드(Rumsfeld) 미국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중국에 가서 북경에 있는 전략핵사령부 등을 방문한 것이다. 그는 중국 군부의 ‘투명성’이 더욱 향상되었음을 보았으며, 미국 국방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한 과정이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증거는 양국에 필요한 부분을 모색한다는 윌리엄 미 국무부 부장관의 최근 연설이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유리한 입장에서 세상을 보라는 모겐타우 교수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다.

물론 양국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그리고 서구와 중국 정부 양쪽 모두에게도 도처에 잠복해있는 위협과 위험이 나타날 요소들이 있다. 금년 여름에 중국군사학교(China’s Defense Academy) 교장이 언급했던 말은 일부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들렸다. 즉, 일부 미국 군사분석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사실상 미국을 동아시아에서 배제하는데 단호한 입장이라

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양국 모두에게서 예상되었던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들을 향후 전망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양국 최고위 지도부의 임무로 남을 것이며, 양국 최고위 지도부 주위에는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와 각국의 역사적 전망을 잘 아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다. 본인이 비교적 낙관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끝으로, 본인은 중국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치하게 만들 수도 있을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만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은 오로지 평화적인 수단으로 대만을 통합하는 정책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그 정책은 미국의 정책을 크게 구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인은 이 부분에서 강연 서두에 언급했던 모겐타우 교수의 말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반세기 전에 모겐타우 교수는, 주요 강대국들은 각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만을 주장해야 하며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기술했다.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모겐타우 교수는 마치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 “나약한 동맹국이 그대를 위한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충고했다. 이것이 바로 대만문제와 관련한 주된 교훈이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즉, 중국과 미국 양쪽 모두가 자신을 파괴시킬 분쟁은 피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에 대한 장기적 결과를 다소 낙관적으로 보는 훌륭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질의·응답

**질문** 포르투갈에 관해 아주 흥미 있는 역사적 언급을 해주신 고든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최초로 마카오 주재 포르투갈 총영사가 되는 특권을 누리면서, 마카오가 430년 간의 포르투갈 행정구역에서 중국의 새로운 특별행정지역으로 아주 원활하게 전환되는 과정을 목격했다. 이러한 역사적 과거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과 중국 간의 양국관계는 아주 좋다고 할 수 있다. 현명한 사람들은 매우 현명한 방식으로 과거를 떠안을 수 있으며 포르투갈과 중국이 이를 확실하게 증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은 직업상 오랫동안 중국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15년 전에 리스본대학

교 아시아학과의 학과장을 지내기도 했다. 본인에게 중국은 항상 호기심과 지적 열정의 대상이었다. 또 본인은 중국을 거듭 방문하면서 중국의 발전단계와, 규모 및 역사적 측면에서 중국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보여주는 중국 지도부의 단호한 정치적 의지에 놀라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중국의 조정노력을 감안할 때 귀하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 가령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과 섬유협상을 할 경우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가? 중국이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에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또한 중국의 노동력이 자국 생산품으로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정 노력에 대한 여타 경제협력 상대국들의 대중국 협상방식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을 어떻게 보느냐를 증명하는 방향으로 치우쳐있다. 중국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우선적으로 협상해야 할 것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문** 본인 역시 유럽 특히 서유럽의 경험에 관한 귀하의 견해가 눈길을 끈다. 즉, 귀하는 서유럽이 아마도 민족주의가 부상하지 않는 예외적인 지역 중 하나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지역에서 민족주의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 서유럽에서 나타난 사건, 예를 들면 가장 적극적인 EU 회원국 중 두 나라인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부정적인 투표결과는 서유럽에서 애국주의나 국가정체성 현상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1,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더 오랜 기간동안의 중요한 경험을 통해 추악한 민족주의의 단면에 대해 깊은 회의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과거 민족주의가 유럽에 상흔을 남겼던 경우들이 많았다. 본인이 유럽인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족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애국주의는 본인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민족주의는 위험하고 불합리적인 것이며 잘못된 세계관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유로, 아시아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귀하의 견해에 공감하는 바이다. 우리가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아시아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는 하나, 실제로 앞으로 5~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 및 여타지역의 민족주의가 비합리적인 행태를 주도할 가능성과, 아시아 여타 지역의 민족주의가 상호 악순환이 자가발전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커질 가능성의 위험은 존재한다. 본인은 한국으로 부임하기 전에 일본주재 대사를 역임했다. 일본의 경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10년 전보다 훨씬 더 회의적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중국의 장기전략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심이 훨씬 커진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분명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대체되어 왔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역사적 사실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이 악순환에 빠져들고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의 위험은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은 냉철한 지성이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의 현실성에 관한 대화를 유지하는 한, 그리고 민족주의적 감정에 대한 관심을 축소하도록 노력하는 한 실제적인 일부 위험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독일과의 비교는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독일의 모델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상황은 아시아만의 특징을 가진 독특한 현상이 될 것이다.

**답변** 우선 포르투갈 대사의 여러 가지 섬유이슈에 관련하여, 본인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자유시장의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본인 생각에는 중국의 저가 섬유수출품으로 인해 현재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EU, 미국 및 여타 개발도상국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WTO 편입하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많았었다는 것이다. 또 크리스마스 특수를 위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유럽의 우려로 인한 여성용 속옷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웃지 못할 실수도 있었다. 그들은 EU 통상위원장이 수입물량 삭감에 동의하자 몹시 당황하였다. 본인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자국의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귀하의 언급에 동의한다. 중국의 근로자들은 세계시장을 위해 많은 물량의 저가 섬유제품을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나 과테말라, 멕시코 근로자들의 시각에서처럼 좋지않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사전경고를 받았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이 WTO 규정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면,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규정에 어긋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본인 생각은 비교적 간단하다. 즉,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모든 WTO 규정을 따르도록 주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보다 튼튼한 토대 위에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WTO의 섬유관련 규정을 존중하고 있다.

네덜란드 대사의 질문은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있었던 EU 헌법안에 대한 반대투표에 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본인은 그것이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부결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초래한 주된 이슈는 바로 이 부분이었으며, 찬성표를 던지면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던 것이다. 하지만 비록 반대표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프랑스나 독일, 네덜란드의 투표라는 측면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국가정체성이나 두려움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은 그러한 결과가 민족주의적 이슈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가능성도 아주 낮다는 귀하의 견해에 본인은 크게 공감하며, 아마 독일과 같은 경우가 반복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당면해야 하는 시스템(system)상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견해에도 동의한다. 우리는 협약형태의 국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시스템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도전을 받느냐의 여부를 떠나 우리는 1930년대의 독일과는 다른 방식의 도전에 대응할 필요성을 찾을 것이며, 이는 실제로 가능하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잠재적인 정치적 오판이라는 것이 본인의 시각이다. 그 중에서도 대만과 관련된 엄청난 정치적 오판의 위험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는 중국이 대만문제와 관련해서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대만 문제는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오판의 위험성은 극히 높은 것으로 양국 지도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본인이 인도에 관해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인도방문 중에 교사들과 동행한 13~14세의 어린이들에게서 “인도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말을 듣고, 민족주의가 강하다는 것을 잘 아는 본인조차도 실로 놀랐다. 또 터키인들이 EU 가입과 관련하여 투르크 민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다시 놀랐다. 터키인들은 투르크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힘과 실체, 그리고 존재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이러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유럽인들은 민족주의가 악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안다. 모겐타우 교수는 1930년대

에 히틀러로 인해 나타났던 극단적 민족주의 형태를 ‘통합적 민족주의 (integral nationalism)’라고 했다. 이는 사람들의 사고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러나 인도와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사회에서조차 민족주의가 쇠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 진정한 위험이 말끔히 제거되지 않고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다. A. G. Frank의 저서 ‘The Reorient’에 의하면, 중국은 18세기까지 세계 경제와 기술을 지배하였고 그리고 나서 서구문명이 중국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또 그는 중국이 세계 경제 및 기술에 대한 중국의 지도력이 21세기 중에 부활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러한 일이 향후 30~50년 내에 발생할 경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견제정책, 대화정책, 균형정책 중 어느 것이 되겠는가? 본인은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근래에 문득 깨달았으며, 동해에서 있었던 중-러 해군합동훈련이 분명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고 유사시 북한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도 군사문제에 대해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관계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이웃국가들을 야만문화를 가진 나라로 취급하면서 각각 북적, 서융, 남만으로 묘사했다. 한국 역시 역사적으로 동이족이라는 야만인 취급을 받아왔다. 중국은 이른바 동북공정(Northeast Passage Project) 프로그램을 시작함으로써, 중국 동북지역 지방정부가 고구려를 중국 변방역사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여 한국 국민들이 몹시 분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민족주의의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 민족주의의 부상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 특히 소수민족인 한반도에 대하는 문화적 우월성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이러한 것이 지속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수준 낮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질문** 오늘 아침에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고든 박사께 감사드린다. 우리가 귀하처럼 훌륭한 연사의 일상을 뛰어넘는 고견을 듣는다는 것은 언제나 가치 있는 일이다. 사실 본인은 중국을 독일과 연관지어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중국의 부상이 잠재적인 불안요소임은 분명하다. 본인의 시각은 첫 번째 질문과 아주 비슷하다. 우리 두 사람이 비슷한 마음으로 질문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중국은 과거에 경제대국이었으며, 21세기 중반 이전에 경제적인 면에서 미국을 잇는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또한 향후 100년이 되면 중국의 경제규모가 실제로 미국보다 몇 배 더 커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귀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적·경제적 입장에서 오판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 본인이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의 오판이 아니라 중대한 오판을 만드는 현상에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복잡한 섬유 및 의류 관련 문제에서 이미 나타났다. WTO 등과 같은 현재의 세계질서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 놓았다. 현재의 세계질서 전반에 걸친 이와 같은 유리함 때문에 독일의 경우와는 다른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여타지역으로부터의 불합리한 저항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본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두 가지이다. 첫째, 미국이 자기 주변에서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커다란 협력상대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보다 현명하게 생각해야 하며, 대치국면보다는 조화국면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본인은 미국에서 15년간 거주했으나 멀리서 관찰해본 결과 많은 위험을 수반하는 민족주의가 미국에 존재하는 것 같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방주의의 여부를 떠나, 몇 년 후 사람들은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을 잃은 것이 후회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대외정책에 있어서 비교적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다. 본인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 많은 분야에서 후퇴하고 있으며 장차 경제대국이 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역시 역사상 가장 복잡한 사회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한 가지 예를 들겠다. 서구에서는 체스를 가장 복잡한 여가용 게임으로 생각한다. 체스는 64가지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가지는 8X8 칸의 판에서 하는 게임이다. 그러나 각 말들이 동일한 비중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약간 줄여서 40 자유도의 게임이라고 하자. 그러나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에는 ‘바둑’ 또는 ‘고(go)’라고 하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은 약 400의 자유도를 갖는 19X19 칸의 판에서 하는 것으로 각각의 바둑알은 동일한 비중을 갖는다. 중국인들이 단순한 여가를 위해 사용하는 게임이 10배 이상 복잡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IBM사가 세계체스챔피언과 겨룰 수 있는 컴퓨터는 만들 수 있지만, 바둑의 경우는 아마추어 중간등급 수준 이상의 컴퓨터를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중국의 오판이 아닌, 중국을 궁지를 몰아넣게 될 세계 여타 지역의

오관에 대한 세부적인 대비가 있어야 한다. 이는 귀하의 언급처럼 최근 태평양을 중심으로 시작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중국으로 하여금 이 세계에 대한 중국의 잠재력에 걸맞는 역할을 하도록 확신을 갖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형태의 세계기구에서 그러하다. WTO의 규정을 따르고자 하는 중국의 열정은 현재의 세계질서가 가치 있음을 중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중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할 때에만 가능하다.

**답변** 미-중 관계 질문에 관한 답변이다. 미국의 정책에서 견제우선주의가 사라진 것은 분명하며, 이 정책은 1971년 키신저(Kissinger)의 중국방문으로 간단히 끝난 정책이다. 미국 내에는 중국이 전략적 파트너인지 또는 잠재적 적인지에 관한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의 최고위층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논쟁은 보편적 시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 차원에서는 한-미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화정책을 용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라이스(Condoleezza Rice) 장관 취임이후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입장변화를 반기고 있으며, 북핵관련 6자회담에 대해 대화정책을 취함으로써 라이스 장관(라이스 장관의 전공분야가 러시아학임은 아시는 바와 같다)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퍼주기의 형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라이스 장관은 힐(Hill) 대사에게 북한과 대화할 권한을 분명히 부여하였으며, 힐 대사가 금년 가을에 평양을 방문하리라는 말을 들었다. ‘대화(engagement)’라는 단어는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된다.

한-미관계에 관해서는 어제 만찬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한국 대통령 취임 당시 몇 가지 의구심들이 있었다. 물론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한-미관계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겠지만, 일부 미국인들은 한국의 새 대통령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심했다. 이러한 시각에 여러분들이 공감하는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체제가 역할을 하도록 두자는 인식과 의지가 지금의 워싱턴에서는 존재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일부 극소수의 완고한 극단주의를 제외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대화할 여지가 없다고 할 이유가 없으며 워싱턴에도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은 없다. 북한의 동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대화하고 한국의 정책을 지지할 의지는 분명 존재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쉬운 일은 아니다.

중국의 역사적 자세와 그러한 자세가 현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이 문제는 분명 덴마크

대사께서 더 자주 접해보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은 일본에 갈 때마다 일본인들의 깊은 민족주의를 항상 느낀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며, 그것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역사의 교훈과는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한-중, 미-중 관계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는 언급할 수 있다. 즉, 미래를 위한 게임은 제로섬(zero sum) 게임이 아니라 윈-윈(win-win) 게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5월 말과 6월에 방한하였을 때 황우석 교수의 훌륭한 업적으로 대단함을 느꼈다. 물론 황우석 교수가 이루어낸 모든 업적이 미국이나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 이러한 것이 미래로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연구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계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연구로 가는 사다리인 것이다.

모든 면에서 도전이 되고 있는 중국문제를 미국이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실험정신에 대한 인류의 잠재력을 탐구정신과 열린 접근방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과학적 탐구 분야의 잠재적 발전에 대해 우리가 상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미국인들은 이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한쪽이 승자이면 다른 한 쪽은 패자가 되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처럼 세상을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는 세계화의 여러 측면 중 하나로 오늘날의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국가관을 따르는 새로운 경쟁관계가 나타날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질문** 귀하의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Richard Lauterbach가 1947년에 쓴 ‘US Military Government History in Korea’와 Owen Latimoa가 쓴 ‘The Situation in Asia’에 의하면, 일본은 누구의 동맹도 아니라고 하면서 아시아의 민족주의를 역설하고 있다. 일본이 어느 누구의 동맹도 아니라는 점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문** 본인은 독일대사관의 정치부서 책임자이며 민족주의의 개념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한다. 본인은 역사적 사실로 인해 유럽 특히 독일의 민족주의가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덴마크 대사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곳 동아시아에서는 전반적으로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다고 느껴지며, 여러 단계에서 이로 인한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동아시아의 군사력 수준이 매우 높고 정치적 통합수준도 그러하다. 동아시아의 정치적 통

합수준과 비교해볼 때 유럽의 정치적 통합수준은 아주 낮다고 생각된다. 또한 무역이 자유화될 경우에는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민족주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무엇인가?

**답변** 독일 입장의 질문에 대해 답하게 된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기쁘게 생각한다. 물론 본인도 독일의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를 비교적 잘 아는 편이며,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슈뢰더(Schroeder) 총리가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 또한 이해한다. 뉴 햄프셔에 있는 본인 친구 중 몇몇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항상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서유럽과 EC(EU)의 부상, 그리고 EC의 부상과 이러한 개념이 동아시아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귀하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한 한 가지 유사성이 있다. 우리는 1957~1958년 John Monet 등이 모여서 로마제약을 체결할 당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Abnauer는 유럽에서 겪었던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정치적 신뢰관계에 뿌리를 두고 자신들이 일하고 있다면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석탄 및 철강 산업에서의 경제 협력 문제로 인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EU의 전신인 EC의 설립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존재했었다는 교훈이 현재의 서반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무시되고 있다. 여기에는 유사점이 없기 때문에 유럽 모델은 현재 아시아가 시도하고 있는 것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른바 미국의 자유무역지대 맥락 하에서는 서반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들은 다소 어리석은 일이다. 포르투갈 대사께서는 본인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미국 주도로 서반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 브라질이 반대하면 이는 절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유럽인들이 교훈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민족주의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여타지역에서는 이러한 교훈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훈을 받아들이는 쪽이 더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유럽은 민족주의를 매우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하다면 이러한 가르침은 세계 여타 지역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쉽다.